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광양시, 지역 안전리더 역할 이끌 안전파수꾼 양성 나서

45명 자격증 수여...2022년까지 200명 양성



광양시가 지역의 안전리더의 역할을 담당하는 안전파수꾼 양성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에 나섰다. 시는 지난 1일 옥룡면 민방위훈련센터에서 제1회 안전파수꾼(안전리더) 양성과정 안전교육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각종 재난·안전사

고 발생 시 시민 스스로가 생존시간 내에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실천 역량을 습득하고, 안전문화 확산의 발판을 위해 안전파수꾼 양성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말 모집 공고를 통해 안전파수꾼 희망자를 모집하고, 온라인 교육과 평가를 실시

했다. 이어 온라인 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난 8월 31일과 9월 1일 이틀간 오프라인(심화교육)을 거쳐 수료생 45명에게 안전지도사 자격증을 수여했다.

이번에 양성된 안전파수꾼(안전리더)은 안전약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 주변 위험으로부터 대응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처 방법 등을 지도하고 교육을 펼치게 된다.

시는 앞으로도 안전파수꾼(안전리더)은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200명을 양성해 안전문화 확산을 이끈다.

김형찬 안전총괄과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생활화해야 한다"며, "이번 제1회 안전파수꾼 수강생 모두 안전 문화운동을 정착하고 확산시키는 안전교육 전문강사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전남 최초 '순천시 에너지 백서' 발간

순천시가 2015년 에너지 자립도시 선언 이후 에너지 주요시책과 추진상황 등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에너지 백서를 발간했다.

'순천시 에너지 백서'는 전남도내 시군 중 최초로 발간하였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순천시의 주요 에너지 정책과 분야별 추진현황을 관련기관과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순천시 에너지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백서는 제1장 정부 에너지 정책, 제2장 순천시 에너지 정책, 제3장 순천시 에너지 추진실적, 제4장 3030 에너지 생산·복지도시 순천 추진계획, 제5장 기타(녹색건축물 지원 및 재생에너지의 이해), 부록(에너지 관련 법령 및 조례)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3030 에너지 생산·복지도시 순천 추진 계획'에는 에너지 자립을 30%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설비 효율화 시책등을 담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보성군 살림 규모 6천억 시대가 코앞으로

제1회 추경예산 5,462억 원 확정

보성군은 3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5,462억 원이 보성군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총 1,135억 원(26.2%) 증가한 5,462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당초보다 1,077억 원이 늘어 5,045억 원, 특별회계는 58억 원이 늘어난 417억 원이다.

일반회계 1,077억 원의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이다. 또한, 정부 추경 취지에 따라 일자리 및 인건비성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법정의무경비 등도 반영됐다.

특히, 이번 추경은 꿈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보성시대를 여는 데 필요한 군민 요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을 통해 군민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2019년도 신규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하여 사전 절차 이행에 필요한 투자재원 마련 및 지난 6. 26.~7. 4. 도로 및 소화전, 산림분야 등 폭우피해 복구비 97억 원을 중점 편성하고, 폭염에 따른 농·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스프링클러 등과 항구적인 가뭄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수지 준설, 용·배수장 정비 및 하천 유지보수, 중·소형 관정 개발 등 용수 개발사업에 69억 원을 배정했다.

또한, 여성과 고령 농업인의 영농편의 맞춤형 소형농기계 구입비, 저온저장고설치, 비기립하우스지원 사업비를 대폭 확충하였으며, 별교읍 시가지 전력선 지중화사업(2018년분) 30억, 초등학교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 17억, 제58회 전남제전준비를 위한 교부금 7억 원을 반영하여 지역 인프라 확충과 지역민 소득 증대를 위한 예산 편성에 힘썼다.

보성군, (주)다도락 세계농업기술상 수상

협동영농분야 우수상...지역발전·인재개발 노력 인정받아



보성군은 지난 8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4회 세계농업기술상'에서 보성군 (주)다도락대표 조현곤이 협동영농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세계농업기술상은 1996년 시작되어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 선진 농업 기법 도입,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 협동영농을 통한 공동의 이익

실천 등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단체·공무원에게 선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협동영농, 기술개발 수출농업, 기관단체 부문, 지도기관 유공공무원 부문으로 시상한다.

(주)다도락은 31년간 녹차 관련업에 종사하면서 국내 녹차의 가공 기술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녹차마작 작목반을 구성하여 유기농 녹차 재배 농가 31명과 협동영농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였으며, 청소년을 비롯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녹차 제다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새로운 체급, 협동영농을 통한 공동의 이익

받았다.

미래의 녹차 산업을 이끌어갈 제다인력 양성을 위해 다항고등학교 차산업과 학생들에게 차제다 및 세계차 이론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진통 제다법의 계승과 함께 녹차 죽염, 녹차크리스피롤, 티업 등 끊임없는 차(茶)관련 제품을 개발 추진하고 있는 점도 높이 평가 받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힘써 단결해 농촌지도사업의 선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수상을 수상한 (주)다도락 조현곤 대표는 이번 수상으로 받은 시상금 전액을 미래 차산업 후계자인 다항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성=안구일 기자

광양시, 유행성각결막염 환자 증가 따른 주의 당부

광양시는 유행성각결막염 환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를 각별히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 간 전국 92개 안과 의원을 대상으로 표본 감시 결과 유행성각결막염으로 안과 의료기관을 찾은 외래환자가 1,000명 중 41.3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4.8명과 비교해 66% 정도가 증가한 수치로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성각결막염은 여름철에 주로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증상은 5~14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양안의 출혈과 안검부종, 안통, 눈물, 눈곱, 이물감 등이 나타난다.

특히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에도 감염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단체생활을 하는 곳에서는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시 보건소는 유행성각결막염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즉시 의료기관

의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 접촉을 통해 쉽게 전파되는 만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는 유행성각결막염이 완치될 때까지 집에 있는 등 타인과 접촉을 자제해야 한다.

정승린 감염병예방팀장은 "유행성각결막염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 씻기를 생활화 해야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얼굴을 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행성각결막염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순천만국가정원 10월까지 야간 연장운영

동문, 호수정원 일원·서문, WWT습지와 한국정원 관람



순천시가 오는 10월 31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의 야간 연장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야간권 매표는 18시부터 20시까

지 가능하며, 21시까지 정원의 밤을 즐길 수 있다.

해가 진 후 순천만국가정원은 야간 경관조명이 불을 밝히며, 동문은

호수정원 일원, 서문은 WWT습지와 한국정원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9월 21일 가을 정원갈대축제가 시작되면 각종 퍼포먼스 공연, 공포체험 등 다채로운 야간 이벤트도 추가 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타 지역에서 밤늦게까지 국가정원을 찾는 관람객들의 아쉬움을 덜어주고,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특별한 야간 산책코스를 선사하는 등 방문객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야간 연장운영을 실시하고 야간 방문객들을 통해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9월 2일까지 순천만국제교향악축제가 진행되며, 같은 달 14일부터는 한평정원페스티벌이, 21일부터는 정원갈대축제가 시작되어 낮시간에도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순천=김종영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신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의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맞춤형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방안 안내